



## 비교정치경제에서의 사회구조적 분석과 역사적 제도주의 간의 논쟁

- 분석수준과 인과론적 우선성을 중심으로

A Debate between Social Structural Approach and Historical Institutionalism: Review and Assessment

---

저자  
(Authors) 최정욱  
Jungug Choi

출처  
(Source) [한국정치학회보 39\(2\)](#), 2005.6, 467-481 (16 pages)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39\(2\)](#), 2005.6, 467-481 (16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정치학회](#)  
The Kore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URL <http://www.dbpia.co.kr/Article/NODE00765985>

APA Style 최정욱 (2005). 비교정치경제에서의 사회구조적 분석과 역사적 제도주의 간의 논쟁. 한국정치학회보, 39(2), 467-481.

이용정보  
(Accessed) 건국대학교  
203.252.179.223  
2015/10/19 18:27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자료를 원저작자와의 협의 없이 무단게재 할 경우, 저작권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The copyright of all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original author(s). Nurimedia is not responsible for contents of each work. Nor does it guarantee the contents.  
You might take civil and criminal liabilities according to copyright and other relevant laws if you publish the contents without consultation with the original author(s).

# 비교정치경제에서의 사회구조적 분석과 역사적 제도주의 간의 논쟁: 분석수준과 인과론적 우선성을 중심으로

최정욱  
전국대학교

## ● 논문 요약 ●

미국을 중심으로 한 현대 비교정치경제 분야에서 가장 흥미하는 연구사조로는 전통적인 사회구조적 분석방법, 이에 대한 비판 이론인 합리적 선택이론과 역사적 제도주의 등이 있다. 사회구조적 분석방법은 경제나 사회적 영역에서의 거시적인 구조, 예를 들면 계급이나 계급분파를 강조하고 그러한 구조가 행위자의 역사적 선택 또는 현재의 행위에 미치는 결정적인 역할을 내세우는 경향이 있다. 이와는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론 또는 논증정치경제학이다. 합리적 선택이론은 구조를 분석단위로 하는 경우 사회현상을 인과론적으로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본다. 이 이론은 궁극적인 인과과정은 인간 개개인의 행위 속에서 설명이 되어야한다는 방법론적인 개인주의를 내세우고 있

다. 이러한 양극단적인 연구사조의 중간에는 역사적 제도주의가 놓여 있다. 이 사조는 중범위 분석단위로서 제도를 설명의 핵심으로 정하고 그것의 효과를 주요한 연구 주제로 삼는다. 서로 다른 분석수준을 설정하고 또한 인과적 우위성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두고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이 사조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충돌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사회구조적 분석방법과 그에 대한 역사적 제도주의의 비판에 초점을 맞추어 대표적인 관련 문헌을 검토한다.

※ 주제어: 사회구조적 분석, 역사적 제도주의, 합리적 선택이론, 구조, 제도

## I. 서론

미국을 중심으로 한 현대 정치학계, 보다 정확하게는 비교정치경제 분야에서 가장 흥미하는 연구사조로는 전통적인 사회구조적 분석방법(social structural approach), 이에 대한 비판 이론인 합리적 선택이론(rational choice theory)과 역사적 제도주의(historical institutionalism) 등이 있다. 사회구조적 분석방법은 경제나 사회적 영역에서 구조라고 칭하는 거시적인 분석 단위, 예를 들면 계급이나 계급분파를 강조하고 그러한 구조가 행위자의 역사적 선택 또는 현재의 행위에 미치는 결정적인 역할을 내세우는 경향이 있다.<sup>1)</sup> 이와는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론 또는

1) 여기서 사회구조라고 함은 주로 계급구조를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구조적 분석은 막스주의적 계급분석을 위주로 하는 연구 사조를 통칭하는 용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이러한 종류의 구조적 분석이 바로 역사적 제도주의자들이

논증정치경제학(positive political economy)이다. 합리적 선택이론은 구조를 분석단위로 하는 경우 사회현상을 인과론적으로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본다. 이 이론은 궁극적인 인과과정은 인간 개개인의 행위 속에서 설명이 되어야한다는 방법론적인 개인주의를 내세우고 있다(Ordeshook 1990). 그리하여 행위자의 선택이라는 과정을 건너뛰고 거시적인 변수로 거시적인 결과를 바로 설명하려는 노력을 거부하고, 미시적인 변수 특히 개개인의 선호도로부터 출발하여 분석한다. 이러한 양극단적인 연구사조의 중간에는 역사적 제도주의가 놓여 있다. 이 사조는 중범위(intermediate-level) 분석단위를 설명의 핵심으로 정하고 그것의 효과를 주요한 연구주제로 삼는다. 이러한 중범위 분석단위의 대표적인 예로 제도(institutions)를 들고 있는데, 영어로 된 이것을 우리말로 일반적으로 번역하면 제도이지만 그 내용을 보면 사실상 기관 내지 조직을 포함하는 훨씬 광범위한 범주들을 아우르고 있다. 예를 들어서, 노동조합은 우리말로로는 제도가 될 수 없고 오히려 기관에 가깝지만 역사적 제도주의자가 보기에는 제도의 한 예가 된다. 서로 다른 분석단위 내지 수준을 설정하고 또한 인과적 우위성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두고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이 사조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충돌하고 있다.

여기서는 사회구조적 분석방법과 그에 대한 역사적 제도주의의 비판을 정치체제 변동과 관련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가장 바람직한 문헌연구는 합리적 선택이론을 함께 다루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구조주의적 분석과 역사적 제도주의에 국한해서 다루고자 한다. 그 이유는 논의의 초점을 하나에 맞추기 위한 것이다. 만약에 세 가지를 함께 다루게 되면 우리는 역사적 제도주의와 구조주의 비교, 구조주의와 합리적 선택이론 비교, 합리적 선택이론과 역사적 제도주의 비교 등으로 초점이 흐려질 수 있다. 여기서는 이 세 가지 중 제일 앞의 주제에 국한해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sup>2)</sup>

이 글은 우선 구조주의의 시각에서는 체제변동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현대 사회구조주의 분석의 고전이라고 볼 수 있는 배링턴 무어(Barrington Moore)의 저서 *Social Origins of Dictatorship and Democracy*에서 출발하여, 칼 마스(Karl Marx)의 논문 "The Eighteenth Brumaire of Louis Bonaparte"와 에블린 후버와 공저자들(Evelyne Huber et al.)의 논문, "The Impact of Economic Development on Democracy"를 검토한다.

그런 다음에, 이러한 사회구조적 변수에 초점을 맞춘 분석에 대해서 제도주의, 특히 역사적 제도주의가 내놓은 두 가지 주요한 비판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 중 하나는 역사적 제도주의가 중시하는 국가 또는 제도는 사회구조적 변수의 종속변수가 아니라 그 자체로 설명력을 갖는 독자적인 변수로서

---

논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구조적 분석이다. 이러한 사회구조적 분석은 근대화 이론이나 그 이후 경제발전을 민주주의의 조건으로 보는 학파들과는 구분된다. 후자의 경우 여기서 다루고 있는 비교정치경제학의 새 학파 어느 하나에 속한다고 보기 힘들다. 예를 들면, 다이아몬드, 린즈 그리고 립셋이 공동으로 편저한 저서(1995)의 서론을 보면, 분석단위와 이 단위의 인과론적인 위상을 중심으로 한 방법론적인 고민을 찾아볼 수 없으며, 제도적인 변수들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변수들을 다룬 인과적 우선순위가 없이 병렬하고 있을 뿐이다.

2) 이 글은 정치체제 변동을 다루고는 있지만 정치체제 변동 이론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결코 주목적이 아니다. 그러한 주제에 비추어서 정치경제학을 형성하고 있는 사조들을 비교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이다. 따라서 정치체제 이행에 일차적으로 관심을 갖고 두고 있는 독자들한테는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남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공교화와 이행의 구분은 중요한 문제이지만 여기서의 관심사는 아니다.

시민사회 내부의 힘의 균형이나 계급구조를 만들기까지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보다 훨씬 약한 비판으로서, 계급과 같은 거시구조적인 변수들은 동일한 거시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 사이에서 보이는 나라 간의 상이성(cross-national variation)을 설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조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단일 나라 내에서 어떤 제도가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institutional continuity)도 설명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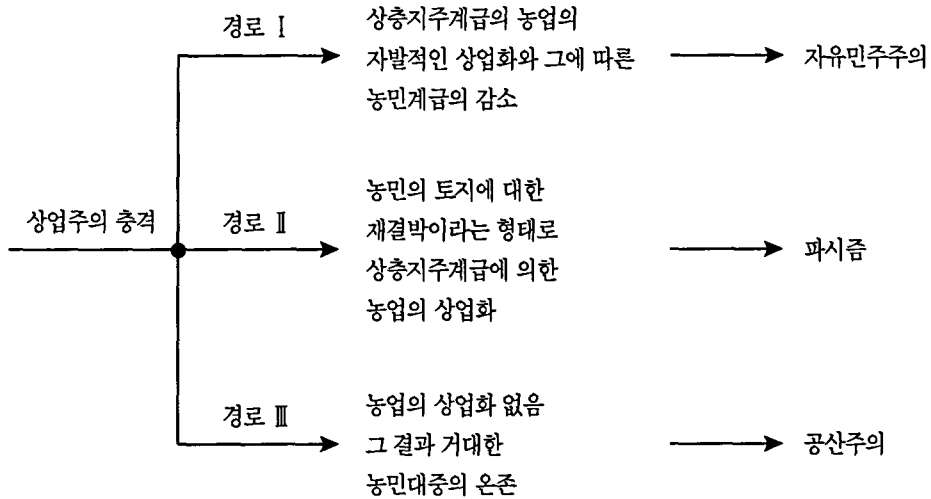
여기서 역사적 제도주의의 문헌의 예로는 스벤 스타인모와 공저자들(Sven Steinmo et al.)의 편집서인 *Structuring Politics*, 아툴 코홀리(Atul Kohli)의 논문인 “Where Do High Growth Political Economies Come from: The Japanese Lineage of Korea’s “Developmental State”를 들고 있다. 또한 역사적 제도주의라는 표현을 비록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그 이전에 사회구조적 분석에 대한 비판의 원조로 볼 수 있는 국가중심주의적인 이론(state-centered theory)을 대표하는 피터 이반스와 공저자들(Peter Evans et al.)의 편집서인 *Bringing the State Back in*과 그러한 국가중심주의 분석의 구체적인 적용사례인 필립 로더(Philip Roeder)의 저서인 *Red Sunset* 등을 넓은 의미에서 역사적 제도주의의 문헌에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에서는 이 글을 간단히 요약하고 두 사조 간의 논쟁을 바라보며, 저자 나름대로 생각하는 사회구조적 분석에 대한 몇 가지 비판을 적고자 한다. 이 논쟁은 사회구조적 분석은 그 자체로서 완결된 체제변동론이 아니라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독립변수로 설정한 사회구조적 변수들이 정말로 주장하는 것처럼 독립적이지도 않고 자명한 것도 아니다. 둘째로, 사회구조적 변수들의 체제변동에 대한 영향은 오로지 장기간에 걸쳐서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 결과, 비사회구조적 변수들이 오히려 역사의 어떤 한 시점에서 일어나는 특정한 체제변동을 보다 잘 설명할 수 있을 수도 있다. 셋째로, 사회구조적 변수들이 체제변동을 불완전하게 설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변수들은 또한 정반대 현상 즉, 체제의 항상성(regime continuity)을 완결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 II. 정치체제 변동에 관한 사회구조적 분석

미국의 사회구조적 분석론자들이 자신들의 연구사조의 효시로 삼고 있다시피 한 배링턴 무어를 보면 사회구조적 분석이 정치체제 변동을 설명하는 전형을 발견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세 가지 다른 서구 근대 정치체제, 즉, 자유민주주의, 파시즘과 공산주의의 기원을 근대 초기에 있었던 상업주의 충격에 대한 세 가지 다른 역사적 반응에서 찾고 있다. 그의 이론의 핵심을 요약하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첫 번째의 근대화 경로는 상층지주계급이 농업을 자발적으로 상업화하고 그 결과 자신들이 거느린 농민의 수를 현저히 감축한 경우이다. 두 번째 경로는 지주에 의해서 농업의 상업화가 이루어 지지만 지주와 농민과의 관계가 자유로운 관계가 아니라 전통적인 속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 관계에서 상업화가 진행되는 역사적 경로이다. 세 번째 경로는 지주에 의한 농업의 상업화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그 결과 전통적인 농업부문에 농민의 대다수가 온존한 채로 근대화가 진행된 경우이다. 이러한 세 가지 상반된 근대화의 경로는 자유민주주의, 파시즘, 공산주의를 각각 낳게 된다고 본다

〈그림 1〉 배링턴 무어의 정치체제 변동 모형



(Moore 1966, 413-426).

역사적 경로 I은 자유민주주의의 형성에 가장 유리한 길이다. 그 이유는 강력한 국가나 왕이 간섭하지 않고도 상공(industrial and commercial) 계급과 지주계급이 직접적으로 서로 자연스럽게 융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지주계급과 상공계급의 융화로 인하여 강압적인 국가권력은 불필요하게 되고 그 결과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들어설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근대화 과정에서 시민사회 내부에서 부르주아 계급의 헤게모니가 자연스럽게 구축되고 지주계급이 부르주아로 변신되면서 근대화를 위하여 억압적인 국가기구를 동원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역사적 경로 II는 앞의 경로와 달리, 시민 사회에서 부르주아가 지배력을 획득하기 힘든 경우에 나타난다. 오히려 이 경로에서는 농업의 강압적인 상업화를 위해서 억압적인 국가기구를 요구하는 상층지주계급에 상공계급이 의존하게 된다. 시민사회에서의 힘의 관계가 이렇게 되면, 도시의 부르주아 계급은 일종의 귀족계급으로 변신하게 되어 버리는데 이것은 경로 I에서 본 것과 정반대로 신흥부르주아 계급이 전통적인 귀족계급을 닮아가는 길이다. 경로 III에서는 이론적으로는 부르주아계급이 전무하고 대체로 변화가 없는 낡은 상층계급과 그들이 지배하는 농민대중만 오로지 있는 사회가 나오게 된다.

요약하면, 배링턴 무어의 경우 정치체제의 종류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신흥 부르주아 계급이 존재하느냐 둘째 존재한다면 지주계급의 자발적인 농업의 상업화를 유도할 만큼 시민사회 내부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하느냐하는 점이다. 즉 그는 계급의 구성과 계급 간의 힘의 관계가 정치체제를 결정하는 가장 궁극적인 요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구조적 요인들을 정치체제의 유형과 직결하기에는 문제점이 많다. 물론 자발적 상업화에 의해서 농민대중의 수가 급격히 줄고 결과적으로 농민을 토지에 강제적으로 속박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억압적인 정치체제가 나올 필요성은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정치체제가 경제구조의 직접적 산물이 아닌 이상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이런 다른 요인들 때문에 억압적인 정치체제가 등장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억압적이지 않은 국가체제가 나온다고 하여, 반드시 서구에서 나온 형태와 같은 자유민주주의체제가 되라는 법도 없다. 따라서 무어의 경제구조적 결정론은 상당히 불완전한 결정론(under-determination)이다.

무어의 저작이 미국에서 사회구조적 분석의 효시로 다루어지고 있지만, 그의 저서에서 나오는 “부르주아가 없다면 민주주의도 없다(no bourgeois no democracy)”라는 주장에서 볼 수 있듯이 그것은 사실상 칼 마스가 제시한 계급론적인 분석에 뿌리를 두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마스의 분석도 잠시 살펴보고자 한다. 무어의 글이 국가 간 상호비교에 기반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가 여기서 보려고 하는 마스의 글 “The Eighteenth Brumaire of Louis Bonaparte”는 루이 보나파르트의 쿠데타와 그에 따른 프랑스 내각제 공화국의 종말이라는 단 하나의 역사적 사건을 다루고 있다. 마스의 경우 자본주의 경제현상을 분석한 글이나 철학적인 논고는 흔하지만 구체적인 정치적인 사건을 다룬 글은 별로 없다. 이런 점에서 그의 정치적 저작 중 하나인 이 논고는 이른바 경제적 결정론으로 불리는 그의 이론이 실제의 정치현상에 적용될 때 어떻게 투영될 수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마스는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과정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정치적이거나 문화적인 요인보다는 계급이나 계급분파 간의 알력과 그에 따른 집권연합의 불안정성을 부각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계급(또는 계급 내의 분파)과 계급 간의 힘의 균형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어와 상통하는 면이 있다. 이런 면에서 무어는 비록 교조적인 유토피론자는 아니지만 마스의 역사론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마스는 “에이틴스 브루메르”에서 프랑스 1848년 2월 혁명이 중국에 1951년 12월 쿠데타로 종식될 때까지를 계급투쟁 내지 계급분파 투쟁의 관점에서 아주 잘 기술하고 있다 (Marx 1885, 97-180). 이 과정에서 나오는 상당히 복잡한 역사적 논의를 떨어내버리고 우리의 관점에서 핵심내용을 도식적으로 표현하면 <그림 2>와 같이 된다. 처음 2월 혁명은 프롤레타리아와 소자본가의 연합으로 시작하였지만 그 다음 단계에서 프롤레타리아는 역사적 국면에서 배제되고 소자본가와 부르주아 공화론자 또는 순수한 공화론자들 간의 연합이 진행되고, 그 이후에는 소자본가가 배제되고 공화론자들이 대지주와 금융 및 대기업가들을 위시한 거대자본가들과 손을 잡고 득세하는 과정이 진행되며, 이 이후에는 공화론자들이 역사의 뒤편길로 물러나고 거대자본가들이 군부와 손을 잡는 시기가 오며, 최종적으로는 거대자본가와 연합하던 군부가 거대자본가를 버리고 룬펜프롤레타리아와 보수적인 농민계급의 지지 아래 권력을 찬탈하게 되었다고 본다.

그림을 보면, 마스가 시민사회 내부의 불안정한 계급분파 간의 연합이 군사쿠데타가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하면 계급이나 계급 간의 알력과 연합으로 정치체제 변동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마지막 단계를 보면 무어와 마찬가지로 그가 대체로 농민계급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견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3)</sup>

3) 마스는 무어와 달리 농민이 권위주의의 결탁하게 되는 논리적 이유를 흥미롭게 제시하는데, 자세한 논의는

## 〈그림 2〉 막스가 본 프랑스 쿠데타의 발생경로: 계급/계급분파 간의 연합의 불안정성

프롤레타리아 + 소자본가 →

소자본가 + 순수 공화론자 →

공화론자 + 거대자본가 →

거대자본가 + 군부 → 군부의 권력찬탈

(룸펜프롤레타리아

보수적인 농민계급의

지지)

후버와 공저자들은 “The Impact of Economic Development on Democracy”라는 논문에서 비록 무어나 막스에 비해서 민주주의 성립과 관련하여 하층계급의 비중을 보다 많이 부각하고 있지만, 계급간의 힘의 균형을 시민사회에서의 힘의 균형의 가장 중요한 축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는 그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 그들은 이어서, 계급간의 힘의 균형은 두 가지 다른 종류의 힘의 결절점들(power clusters), 즉, 국가와 시민사회 간의 힘의 균형과 초국가적인(transnational) 권력 구조와 더불어 민주주의 수립의 성공을 위해서 일차적으로 중요한 힘의 결절점으로 보고 있다.<sup>4)</sup> 그들은 “지배집단의 경제력과 문화적인 힘이 시민사회 내부의 하위계급의 조직력에 의해서 상쇄될 때만 오로지 민주주의는 발전하고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Huber et al. 1993, 74). 그들은 비록 초국가적 권력구조,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 시민사회 내의 계급 간의 힘의 관계 등 세 가지 다른 힘의 결절점을 운운하고 있지만 강조점은 분명히 시민사회 내부에서의 힘의 관계에 두고 있다. 그들은 “자본주의 발전은 계급 간의 힘의 균형을 변형시키기 때문에, 지주계급을 약화시키고 하위계급의 힘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연관이 있으며(Huber et al. 1993, 74-75)” “산업화와 도시화로 야기되는 계급구조와 사회구조의 변화들은 ... 민주주의에 가장 결정적이다”라고 결론짓고 있다(Huber et al. 1993, 85).

그러하여 이들에 따르면,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계급구조가 변화하는 것과 하위계급의 힘이 강화되어 지배집단을 견제할 수 있도록 힘의 균형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시각은 무어가 지배집단 간의 관계를 주시한 것과 달리 지배집단과 피지배집단 간의 힘의 균형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별이 나지만, 사회 계급구조를 핵심 분석

---

Marx(1885)의 172쪽 참조.

- 4) 세 가지 힘의 결절점 가운데 국가와 사회 간의 힘의 균형 관계라는 변수를 사회구조적 입장에서 다룬 글로는 민션 빼이(1994)를 들 수 있다. 그는 과거 공산체제에서 소외되었던 사회세력의 국가에 대한 힘의 강화라는 관점에서 공산주의로부터의 이행을 분석하고 있다. 이 변수를 가지고 그는 구소련과 중국의 체제변동에 있어서 상이성을 설명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에는 시민사회 내부에 있는 체제밖의(extra-regime)세력이 성장하여 점진적인 권위주의 노선을 가게 되었지만 구소련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여 이른바 혁명적인 이중돌파 노선(revolutionary double-breakthrough route)을 걷게 되었다고 본다.

단위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사회구조적 분석의 틀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 Ⅲ. 사회구조적 분석에 대한 제도주의의 비판과 그에 대한 비판적 재검토

#### 3.1. 인과관계의 역전과 급진적인 제도주의: 국가중심주의 이론

역사적 제도주의의 초기 형태에 해당하는 국가중심주의 이론(state-centered theory)은 뒤에 나오는 본격적인 역사적 제도주의보다 어떤 면에서 보면 사회구조적 분석의 비판에 있어서 보다 급진적이다. 국가중심주의 이론은 국가나 국가기관을 사회경제적 구조와 분리되는 하나의 제도로 보고 또 그러한 제도로서의 국가나 국가기관의 역할을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제도주의 한 부류로 간주할 수 있다. 국가중심주의 이론은 일반적으로 국가를 설명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 자체가 설명력을 갖는 변수로 보거나 아니면 그것이 사회의 종속변수가 아니라 사회를 나름대로 형성하여 가는 기관으로 본다. 그리하여 이러한 분석들은 “국가는 기본적으로 계급이나 계급투쟁에 의하여 형성된다”고 보거나 체제변동의 기원을 시민사회 내부에서 찾으려는 지적인 전통과는 확연히 구별된다(Evans et al. 1985, 5-6). 이 중 급진적인 국가중심주의 이론은 국가나 제도가 갖는 설명력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데, 그러한 이론의 한 예를 보면, 국가는 기존의 지배계급, 상층 지주계급 또는 귀족을 혁파하며 그 반대로 상층계급이 국가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Evans et al. 1985, 10).<sup>5)</sup> 이를 도식화하면, 처음에 지배계급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새로운 독자 정치세력이나 국가의 억압적인 기관, 즉 군부가 국가의 다른 부문까지 장악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기존 상층계급을 혁파하고 그 결과 새로운 사회구조가 등장한다고 본다.

필립 로더가 구소련의 붕괴를 설명하는 방식에서 이러한 강력한 국가중심주의적 설명을 적용한 실제 사례를 찾아 볼 수 있다. 그의 이론은 체제변동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시민사회 내부의 힘의 관계를 일방적인 독립변수로 설정하는 사회구조적 분석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비록 그가 구소련의 붕괴를 과연 자신의 논리와 얼마나 일맥상통하게 실제로 설명하였느냐하는 문제가 남아있지만, 그의 주장 자체만 보면 시민사회 중심의 사회구조적 설명과는 양립하기 힘들다. 그는 “사회중심의 분석들은 국가를 종속변수 내지 현금등록기 또는 단순한 심판관으로 치부함으로써 소비에트 국가가 사회를 형성하였고 특히 사회와 각 세대 내에서 승자와 패자를 택하는 힘을 가졌다는 것을 간과하는 잘못을 저지러 수 있다”고 본다(Roeder 1993, 17). 계속해서, 그는 비록 이렇다고 해서 사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중심의 분석은 우리가 하는 분석의 중심에 계급이나 경제적 구조가 아니라 정치를 놓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Roeder 1993, 20). 이러한 주장만 보면 다음 절에서 보게 될 보다 온건한 역사적 제도주의와는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아주 다르다. 구소련 붕괴에 관한 그의 이론은 사회중심의 설명을 단순히 변경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거꾸로 뒤엎어 놓은 것이다.

5) 이것은 트림버거(Ellen Kay Trimberger 1978)의 체제변동 모델이다.



뢰더의 이론은 정치체제 붕괴의 기원을 기본적으로 정치체제 내에서 찾으려는 시도이다. 이것은 언뜻 보기에 모순적이다. 왜냐하면 그가 붕괴를 설명하려고 하는 대상이 체제인 동시에 그가 바로 이러한 대상의 붕괴를 설명하기 위하여 동원하는 대상이 또한 바로 체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칼 막스의 내적인 모순론을 다만 정치영역에 그대로 적용한 것이라고 보면 그렇게 모순적인 것도 아니다. 뢰더에 따르면, “공산당 일당체제는 소비에트 사회에 일어났었던 거대한 사회적 변화에 반응하는 능력의 부족 때문에 궁극적으로 붕괴되었는데, 특이하게도 그러한 사회적 변화 자체가 또한 공산당이 일으킨 것이다(Roeder 1993, 3).” 정치체제가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적응하고 스스로를 혁신하는 능력을 근본적으로 상실한 것이 체제붕괴의 원인인데, 그러한 혁신능력의 결핍은 체제 내의 정치적 책임성을 묻는 구조가 수직적인 구조 아니라 수평적인 상호견제식인데서 크게 기인한 것이라고 본다. 소련체제의 특징인 수평적 상호견제식의 책임성(reciprocal accountability)으로 인하여 새로 부상하는 사회세력들, 그 중에 특히 1980년 기준으로 1200만 명에 이르는 지식인 집단을 체제 내로 통합할 수 있는 개혁적인 체제를 구축할 수가 없었다(Roeder 1993, 5). 그러한 개혁적인 체제는 만약에 수직적인 책임성(hierarchical accountability)을 제도화한 체제라면 가능하였을 것이다. 더군다나, 사회변동 또는 새로운 정치 세력의 등장 그 자체도 뢰더에 따르면 체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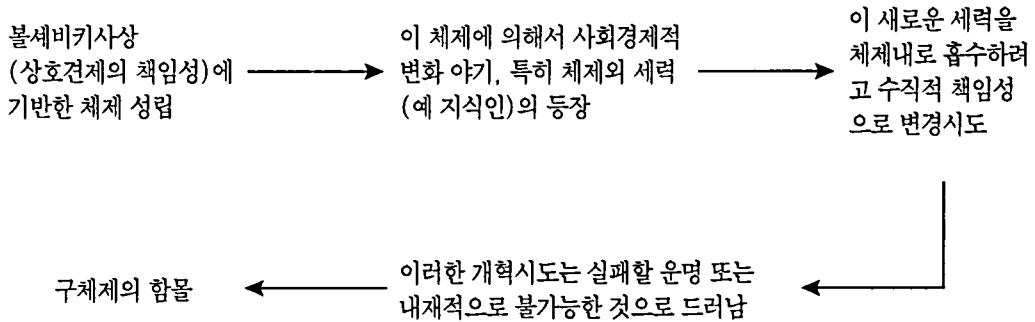
물론 사회구조이론에 의존하지 않고 그 자체로서 완결된 패러다임으로 작용하려면 뢰더의 국가중심주의적 설명은 과거 소비에트 체제 그 자체가 처음 만들어질 때 시민사회 내부의 사회세력들과는 별개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어야만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미해결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론을 여전히 강력한 국가중심주의 이론의 한 예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의 체제변동 모델은 <그림 3>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뢰더의 정치체제 변동에 관한 모델에 나오는 인과관계는 사회구조적 설명과 비교하여 볼 때 인과관계의 설정에 있어서 원인과 결과가 역전된 것으로, 정치적 제도 변수를 사회적 구조의 변화보다 인과적 우선순위에 놓은 것이다. 이것은 사회구조적 설명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것이다. 배링턴 무어의 분석에서는 상층계급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국가를 개조하거나 자신들의 계급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국가에 의존한다고 본다. 하지만 계급 그 자체가 뢰더나 강력한 국가중심주의적 이론가가 보는 것처럼 국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후버와 공저자들의 경우에도 비록 국가를 체제변동의 분석에 변수로 포함하였지만 이로 인하여 사회구조적인 분석의 이론적 정합성이 저해된다고 보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국가구조는 그것이 시민사회 내부의 힘의 균형에 영향을 주는 한에서만 체제변동에 의미가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 3.2 온건한 제도주의와 중범위 분석이론: 역사적 제도주의

모든 종류의 제도주의 이론이 사회구조적 연구패러다임과 극단적으로 상충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것은 사회구조적 분석과 양립 가능하며 때로는 상호보완적이어서 그러한 패러다임의 일부로 간주될 수도 있다. 이런 종류의 제도주의를 온건한 제도주의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스

〈그림 3〉 리더의 체제변동 모형



카치폴(Theda Skocpol)에 따르면, “국가에 대한 연구만으로는 계급이나 집단에 대한 관심을 대체할 수는 없다. 또한 사회중심적인(즉 구조주의적인) 설명 대신에 전적으로 국가결정론적인 주장만을 만들 수도 없다(Evans et al. 1985, 20).” 또한, “계급이나 계급적인 알력은 산업사회에 언제나 존재한다. 하지만 계급이익이나 갈등의 정치적 표현은 결코 자동적이나 경제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국가의 활동이나 구조가 그러한 계급적 능력(class capacities)을 크게 제한한다(Evans et al. 1985, 25).”

이러한 이론적 입장은 스타인모와 공저자들의 역사적 제도주의에서 그대로 계승되어 잘 나타나고 있다. 이들이 구조적 변수로서 계급과 비구조적 변수로서 제도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다음 인용구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

계급과 같은 거시수준의 사회경제구조의 영향을 중재하는 중간수준의 제도에 초점을 둔다면 자본주의 나라들 간의 상이점을 제대로 다룰 수 있는 보다 훌륭한 분석력을 갖추게 된다. 계급적 차이는 모든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공동으로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이며 분석범주로서 모든 자본주의 나라들에 공히 적용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자본주의 나라들 간의 정치적 행위의 차이점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여러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집단과 개인들이 자신들의 목표와 다른 행위자들에 대한 관계를 규정하는 방식과 계급적 차이가 서로 어떻게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맞물려 있는지 진정으로 알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계급은 미국보다 스웨덴과 영국에서 더욱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주장해도 무방하다. 그리고 우리는 현실 정치행태에서 계급이 차지하는 중요도에서의 그러한 차이는 계급이라는 변수가 국가와 사회적 제도 또는 기관들(정당 간의 경쟁, 노동조합 구조와 기타)을 통해서 강화되고 고착되는 정도에 달려있다고 주장하고자 한다(Steinmo et al. 1992, 11).

즉, 자본주의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동일한 계급구조는 그 자체만으로는 자본주의 나라에서 발견되는 정치적 차이점을 설명하기 힘들며, 계급이라는 변수가 차지하는 중요도도 나라별로 차이가 난다. 또한 이렇게 나라별로 계급변수의 중요도가 차이 나는 것은 제도적 변수들에 의해서 매개되어 결정되는 것이다. 스타인모와 공저자들은 또한 “제도가 사회에 존재하는 경쟁 집단 간의 힘의 관계를 구

조화한다”고 믿는다(Steinmo et al. 1992, 7). 다시 말하면, 그들은 비록 제도가 사회적 균열들 그 자체를 구조화하거나 집단이나 계급 그 자체를 형성한다고 보지는 않지만, 사회적 균열 중 어떤 것이 보다 현저하게 나타날 것인지를 결정한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역사적 제도주의의 두 가지 기본적인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나라 간 상이성에 관한 주장: 만약에 어떤 나라들이 추정컨대 계급구조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면, 나라 간 공통적인 계급구조는 그러한 나라 간의 차별성을 설명할 수 없다. 그리고 그러한 차별성은 대신에 비구조적인 제도로서 설명되어야 한다. (2) 동일 나라에서의 시간적인 연속성에 관한 주장: 만약에 어떤 한 나라에 정책이 시간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불변한다면, 그러한 역사적 연속성은 계급구조로는 설명할 수 없다. 특히 같은 기간 동안에 계급구조가 달라졌다면 더욱 그러하다. 이런 시간적 연속성은 계급구조가 아니라 제도로 설명하여야만 한다.<sup>6)</sup>

이러한 두 가지 주장은 매우 논쟁적이며 또한 역사적 제도주의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주장과 관련하여 한 가지 지적할 수 있는 문제점은 처음에 여러 나라 사이에 유사한 것으로 보였던 계급구조도 더욱 미세하게 분석하면 차이점이 있을 수 있고 그 결과 처음에 구조적 변수로 설명이 안 되었던 나라 간 상이성도 구조적 변수로 설명될 수 있을지 모른다. 또 다른 문제점은 비록 구조적인 변수들이 진정으로 완벽하게 통제된다고 할지라도 나라 간 상이성이 반드시 제도적인 변수로만 설명되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이것을 뒤집어서 보면 역사적 제도주의의 또 한 가지 한계점이 드러나는데, 그것은 역사적 제도주의는 서로 다른 거시구조에서 발견된 서로 다른 차이점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역사적 제도주의가 말하는 제도는 단지 중간범위의 변수에 불과하며 그 결과 거시변수인 구조적인 변수들이 통제될 때만 설명력을 갖는다. 만약에 거시적인 구조가 변하는 동시에 제도적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제도적인 변수가 원인인지 알기 힘들다.

역사적 제도주의는 (1)제도의 역사적 연속성과 (2)나라 간 상이성의 원천으로서의 제도의 영향력을 여전히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연구과제로 삼고 있지만, 최근에는 제도적 변화의 기원과 제도의 역사적 불연속성을 새로운 연구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영역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제도주의는 만약에 제도의 기원을 계급과 같은 구조적 변수들과 무관하게 설명해내지 않는 이상, 사회구조적 분석과 동일 수준에서 나란히 경쟁하는 패러다임이 될 수는 없다. 사실, 역사적 제도주의자들이 하는 제도변화에 관한 설명을 보면 사회구조적 변수들이 갖는 근본적인 우선성을 인정하고 있다. 제도 자체의 변화를 포함한 제도적 변화를 다루는데 있어서, 그들은 사회경제적이나 정치적인 배경의 변화나 외생적인 변화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비록 그들은 이러한 제도의외적인 변화에 대응하여 행위자들이 어떻게 제도 내에서 전략적으로 움직이는가를 강조하고 있지만, 그들은 “제도의 의미와 작용의 변화는 보다 광범위한 사회경제적인 격변과 정치적인 변화 등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Steinmo et al. 1992, 16-17).

실제로, 사회구조의 근본적인 우위성을 인정하면서도 시민사회 내의 권력관계가 국가제도나 기관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 역사적 제도주의자들은 후버와 공저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6) 스타인모와 공저자의 역사적 연속성에 대한 입장은 여기서 서술한 것처럼 명확하지는 않다. 이 두 번째 주장은 그들의 주장에 일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저자가 재구성한 것이다.

왜냐하면 후버와 공저자들 역시 국가나 국가기관이 계급 권력관계의 전체적인 윤곽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며, 하나의 힘의 결절점인 국가와 시민사회 간의 힘의 균형은 첫 번째 힘의 결절점인 계급들 간의 힘의 균형에 완전히 환원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역사적인 연속성을 강조하는 면에서 보면, 역사적 제도주의자들과 사회구조적 분석 간의 유사성은 한층 강하다. 왜냐하면 역사적 제도주의자들이 이론과 달리 현실적으로는 역사적 연속성 문제를 언급할 때 사회구조적 효과와 국가제도적 효과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뒤섞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틀 코홀리의 논쟁적인 논문(1994)은 이러한 문제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는 역사적인 잔재가 체제유형을 결정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잔재는 사회구조적인 것일 수도 있고 국가제도적인 것일 수도 있는 모호한 것이다.

자세히 보면, “박정희 통치아래서의 한국은 ... 복잡한 역사적 잔재로부터 발생할 수 있었던 두세 가지 주요한 대안들 중 하나를 선택하였다. 혁명적인 공산주의, 이승만 타입의 부패하고 소모적인 독재체제, 그리고 미국식의 더욱 개방된 민주주의 이 세 가지 모두 한국이 나아갔을 수도 있었던 현실적인 역사적 대안이었다. 그러나 한국이 중국에 택한 노선, 즉 일본식의 국가주도적인 수출경제(개발권위주의)의 핵심적인 요소는 사회조직(social fabric) 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Kohli 1994, 1286).” 그러한 핵심적인 요소들은 일본식민지 시대가 끝나고도 박정희 시대까지 여전히 온전히 남아있었는데, 그 예로는 “부패청산과 경제문제 해결에 다시 주력하고 권위주의적으로 변신할 수 있고 사회 깊숙이 광범위하게 침투한 국가, 목표의식이 강한 국가와 협력하는데서 오는 혜택을 아는 국가의존적인 재계와 고도로 통제된 노동계급” 등이 있다(Kohli 1994, 1286). 즉, 코홀리는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는 결코 퇴색되지 않은 구조(여기서의 구조는 제도와 뚜렷하게 구별이 안 되는 그런 구조인데)와 지도자의 의식적인 선택에 의한 구조의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지만 지도자들의 선택 또한 과거의 잔재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이루어진 것이다. 즉, 친일 분자로 만들든 그들의 과거 경험 또는 일본식민주의에 대한 그들의 애착감에 속박된 채 한 선택이다. 코홀리는 일인독재,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는 다른 대안을 두고서 한국이 개발권위주의 체제를 선택한 것은 과거로부터 남아 온존하는 구조적 잔재와 역사적 잔재의 영향 아래 엘리트가 한 선택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Kohli 1994, 1285-86).

역사적 연속성을 코홀리의 논문에서처럼 사회구조적인 잔재와 국가제도적인 잔재를 뚜렷이 구분하지 않고서 단지 인간의 선택에 대한 구조화된 제약으로만 이해한다면, 역사적 제도주의는 사회구조적 분석 특히 “역사적” 구조주의라고 칭할 수 있는 무어의 분석과 크게 다르지 않다. 무어의 분석을 보면, 이전 시간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은 이후에 일어나는 역사적 과정의 전개에 대해서 일정한 테두리를 설정해 놓는다. 이것은 그가 영국에서 왜 반동적인 저항이 단순히 지나가는 한 국면에 불과하였는지를 설명하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Moore 1996, 444). 그러한 점은 프랑스혁명이 나중에 프랑스 민주주의에 미친 영향을 다루는 데서도 나타난다. 즉 “구체제의 폭력적인 해체는 프랑스가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긴 여정에서 결정적인 단계였다.” 이것은 “프랑스의 역사가 중국에는 필연적으로 자유민주주의로 귀결될 것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Moore 1966, 108). 오히려, 그것은 프랑스 혁명이 없었더라면 나중의 프랑스 역사는 매우 다른 식으로 전개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무어의 논리는 코홀리가 한국의 경제발전과 관련하여 일본식민주의 경험의 공헌을 다루는 방식과 아주 유사하다.

다른 한편, 만약에 국가제도적 잔재라는 의미에서 역사적 연속성을 사회구조적 연속성과 분리해서 논급할 때는, 역사적 연속성의 강조는 체제변동에 대한 사회구조적인 분석의 정합성을 해칠 수도 있다. 사회구조와 분리하여 제도변수에 초점을 맞추어 역사적 연속성을 다루다보면, 특정 역사적 시점에서 발견한 정치체제간의 상이성을 그 시점 이전에 존재하였던 정치체제 간 상이성으로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다.<sup>7)</sup> 이것은 정치체제의 다양성을 비체제적인 요소인 사회구조적인 차이점에서 비롯된다고 보는 무어의 모델과 달리, 특정 시점 이후 발견되는 체제의 다양성을 그 시점 이전에 존재하였던 다른 정치체제의 역사적 잔재로 간주하는 것이다. 세 가지 근대 정치체제의 기원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무어가 그 이전의 구체제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있는 반면, 우리는 출발점 또는 이행 이전 체제가 달랐었고 그 결과, 최종적인 결과, 즉 이행 후 정치체제도 달라졌다는 가설을 상정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구조적 연속성과 분리된 제도적 연속성으로서 역사적 연속성을 강조하면 사회구조적 분석과 배치되는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다.

#### IV. 결론

이 글은 우선 배링턴 무어, 막스 그리고 후버와 공저자들의 저작에 나오는 사회구조적 분석의 특징을 정치체제 변동과 관련하여 살펴보았다. 그 다음에는 사회구조적 분석에 대한 제도주의에 입각한 비판을 나름대로 정리하여 보았다. 제도주의적 비판 중 보다 급진적인 비판은 국가제도중심의 이론을 선호하는데, 사회구조적 분석과는 무엇이 원인이 되어야 하고 결과가 되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정반대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즉, 계급구조의 독립성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계급구조와 그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개별 계급 그 자체가 국가기관이나 제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급진적인 비판은 그 결과 근본적인 설명요인을 시민사회 내부가 아니라 제도와 국가 속에서 찾아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부류의 국가중심적 제도주의는 사회구조적 설명과 양립하기 힘들며 오히려 그것을 대체하는 별도의 패러다임과 같은 것이다. 이러한 예를 우리는 필립 리더에서 찾아보았다.

반면에, 보다 온건한 비판은 초기의 국가중심주의적 이론을 변형하여 이어받은 이른바 역사적 제도주의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 부류의 제도주의는 사회구조적 변수들의 근본적인 우위성을 그대로 견지하거나 최소한 부인하지는 않는다. 그 대신에 구조적 변수들의 테두리 안에서 작용하는 중간수준의 범주들을 찾아내려고 노력한다. 바꾸어 말하면, 급진적 제도주의와 달리 계급 자체의 독립성을 인정하지만, 개별 계급과 계급의 상호작용 구조 내지 힘의 균형 구조는 국가제도나 기관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온건한 제도주의자로는 이 글에서 스타인모와 공저자들, 스카치폴 그리고 코홀리 등을 들었다. 특히, 제도의 지속성을 강조하는 역사적 제도주의자들이 사회구조적 잔재와 제도적 잔재를 주의 깊게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들의 분석과 사회구조적 변수

7) 비슷한 논리를 우리는 Linz and Stepan (1996)의 제4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

들의 역사적 구속력을 강조하는 사회구조적 분석과는 별다른 차이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다른 말로 하면, 역사적 연속성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사회구조적 분석과 역사적 제도주의 간에는 일맥상통하는 면이 존재한다. 이런 면에서 온건한 제도주의는 사회구조적 분석과 상호 보완 관계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끝맺기에 앞서, 사회구조적 분석과 제도주의 간의 논쟁을 보면서 저자가 나름대로 느낀 점을 몇 가지 적고자 한다. 언뜻 보기에는 체제의 변화는 체제 외적인 요인, 특히 사회구조적 변수들에 의해서 설명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이것은 그렇게 당연한 것이 아니다. 체제변화와 관련하여 사회구조적인 분석이 갖는 문제점 중 하나는 사회구조적 분석에서 독립변수로 상정한 계급구조(계급 균열 구조와 계급 간 힘의 분포라는 두 가지 의미 모두에서)는 종속변수로 상정한 체제 변수, 예를 들면 국가제도나 정책과 같은 변수들에 의해서 역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때로는, 체제변동이 일어나기 직전에 존재하였던 국가 형태도 계급 분열 구조와 계급 간 힘의 균형 두 가지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계급 간이나 계급분파 간 힘의 균형이나 계급 균열 구조 그 자체도 완전히 독립적이지 않다. 즉, 비계급적 요인들을 배제한 채 계급이나 계급간의 힘의 균형만 가지고 체제변동을 완전히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구조적 분석이 갖는 취약점으로, 이런 약점 때문에 비계급적 요소들, 특히 국가제도가 사회구조적 분석에 선택적으로 편입되고 이 결과 사회구조적 분석의 정합성이 어느 정도 타격을 받게 된다. 이러한 약점은 바로 그러한 국가제도 그 자체가 계급구조의 영향 아래서 형성된 것이라고 항변한다고 해서 무마되는 것이 아니다. 더욱 설득력 있는 항변은 계급 간의 힘의 균형이나 계급 균열 구조는 국가제도나 체제의 종류와는 대체로 독립적으로 형성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회구조적 분석의 또 다른 문제점은 사회구조적 변수들만으로는 체제변화의 차이, 즉 이행 이전의 체제와 이행 후의 체제 간의 변화의 정도(regime change differential)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사회구조적 변수들은 체제변화의 정도를 설명하는 필요조건일 수는 있어도 충분조건은 아니다. 그리하여, 사회구조적 변수들의 체제변동에 대한 효과는 즉각적이거나 직접적이지 않다. 그리하여, 사회구조적 분석에서 최종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종속변수에 구조적 효과가 영향을 미치는 과정은 요원하기 때문에 그 전 중간단계에 비구조적인 변수들이 개입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사회구조적인 분석이 갖는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회구조적 분석이 잡다한 변수들을 모델 안에 상정하지 않는 매우 축약적인(parsimonious) 설명모델이라는 말과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사회구조적 변수가 특정 체제변동을 얼마나 많이 설명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심각하다. 왜냐하면, 만약에 사회구조적 변수들이 체제변동의 총체적 내용 중 어느 정도에 책임이 있는지를 모른다면, 어떤 다른 비사회구조적 변수들이 체제변화에 사회구조적 변수보다 총량적으로 더 많이 기여한다는 주장을 논박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사회구조적 변수들이 특정 체제변화의 정도를 설명하는지 모른다는 사실은 사회구조적 변수들이 특정체제의 경우 왜 어떤 정도까지만 변화하였는지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한다. 뒤집어서 말하면 이것은 또한 사회구조적 변수들은 체제가 변하지 않고 있는 정도를 설

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한다. 여기서 사회구조적 분석의 또 다른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 결과 제도적인 연속성을 강조하는 이론을 자신의 설명영역 안으로 들어오게 내버려 둘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여 사회구조적 분석은 체제 연속성 또는 항상성(regime continuity)은 불변하거나 불완전하게 변한 사회구조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고 항변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는 문제는 왜 특정한 정도의 체제 항상성이 발생하느냐하는 것이다. 이런 점 때문에 이행 후에 어떠한 체제가 들어설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행 이전 체제의 속성도 알 필요가 있으며, 이것은 현재 시점에서 살아 움직이는 과거 제도의 잔재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 참고 문헌

- Diamond, Larry, Juan J. Linz, and Seymour Martin Lipset, eds. 1995. *Politics in Developing Countries: Comparing Experiences with Democracy*. Boulder: Lynne Rienner Publishers.
- Evans, Peter, Dietrich Rueschemeyer and Theda Skocpol, eds. 1985. *Bringing the State Back i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uber, Evelyne, Dietrich Rueschemeyer, and John D. Stephens. 1993. "The Impact of Economic Development on Democracy."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7(3), 71-85.
- Kohli, Atul. 1994. "Where Do High Growth Political Economies Come from? The Japanese Lineage of Korea's 'Developmental State.'" *World Development* 22(9), 1269-1293.
- Linz, Juan and Alfred Stepan. 1996. *Problems of Democratic Transitions and Consolidation: Southern Europe, South America and Post-Communist Europe*.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Marx, Karl. 1885. "The Eighteenth Brumaire of Louis Bonaparte." Marx, Karl and Frederick Engels. 1986. *Selected Works*.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 Moore, Barrington, Jr. 1966. *Social Origins of Dictatorship and Democracy*. Boston: Beacon Press.
- Ordeshook, Peter. 1990. "The Emerging Discipline of Political Economy." James Alt and Kenneth Shepsle, eds. *Perspectives on Positive Political Econom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ei, Minxin. 1994. *From Reform to Revolution: The Demise of Communism in China and the Soviet Un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Roeder, Philip G. 1993. *Red Sunse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teinmo, Sven, Kathleen Thelen and Frank Longstreth. 1992. *Structuring Politics: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n Comparative Analysi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rimberger, Ellen Kay. 1978. *Revolution from Above: Military Bureaucrats and Development in Japan, Turkey, Egypt and Peru*.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Books.



## **A Debate between Social Structural Approach and Historical Institutionalism: Review and Assessment**

*Jungug Choi*

This study first reviews some works of Barrington Moore (1966), Karl Marx (1885), and Evelyne Huber et al. (1993) that represent social structural approach, one of the three contending research paradigms in comparative political economy along with rational choice theory and historical institutionalism. Then, it points out two main critiques of these social structural analyses mounted by historical institutionalism, as found in Peter Evans et al. (1985), Philip Roeder (1993), Sven Steinmo et al. (1992), and Atul Kohli (1994), and discusses how serious these critiques are. Finally, it concludes with a brief summary and my own critical comments about social structural approach.

**Key Words:** social structural approach, historical institutionalism, rational choice theory, institution, structure